

베네수엘라 강진... 교계 기도 및 구호 손길 이어져

주요 교단 성명 발표, 한교총도 모금 독려로 지원 촉구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위로를 전하며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다. 교단과 연합기관, 기독교 NGO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회복을 기원하며 연대와 나눔을 호소했다.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외신과 현지 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1,450명, 부상자는 3,150명 안팎으로 집계됐으며 수만 명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구조 끝난타인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와 의료진의 안전, 유족과 이재민을 향한 위로 를 함께 건넸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고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함께 하길 기도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복구와 구호 활동에 매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긴급구호 최고 단체인 ‘카테고리3’를 선포하고 미

화 5,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카테고리3은 전 세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최고 재난대응 단계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도 피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기금 10억원을 지원하고 긴급구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모금된 기금은 피해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식수·영양 지원, 필수 의료 서비스, 아동보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도 현지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해 피해 상황과 긴급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단체는 임시 거처와 식량, 식수, 의류, 서비스 등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상운 전 성결대 총장, 대학총장포럼 회장 재연임

정기총회 갖고 2026년 사업계획도 함께 논의



정상운 전 성결대 총장이 한국 대학기독교총장포럼(대학총장포럼) 제5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대학총장포럼은 지난 19일 평택대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정상운 전 총장을 민장일치로 추대했다. 정 전 총장은 2022년 제7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다시 포럼을 이끌게 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에서 한국 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와 한국 신학대학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년 대학총장공동해외연수 회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연수 회에서는 AI시대 한국기독교대학의 교육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0월에 제3회 한국기독교대상, 11월 한국기독교한림원과 공동으로 정교분리에 대한 주제의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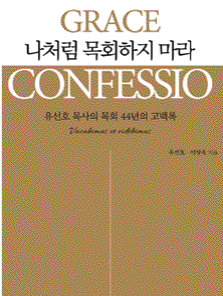
2014년에 창립된 대학총장포럼은 초교파적으로 고신대, 종신대, 서울신대, 한세대, 성결대, 대선인대,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다시 포럼을 이끌게 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에서 한국 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와 한국 신학대학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년 대학총장공동해외연수 회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연수 회에서는 AI시대 한국기독교대학의 교육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신간 소개

나처럼 목회하지 마라

『나처럼 목회하지 마라』는 유선호 목사가 44년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남긴 신앙유산 고백록이다. 저자는 자신의 목회를 성공답이 아닌 참회록으로 고백한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이 그러하듯 그도 교회를 개척하면 1년 안에 100명은 넘으리라 생각했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목회를 잘 하는 것인 줄로 착각했었다. 목회는 “Total Pastoral Care”인 것을 뒤늦게 깨달아간다. 뒤돌아보니, 이성과 열정이 여호와와의 구름따라 광야 길을 갔듯이 이제까지의 삶의 여정도, 44년의 목회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였다. 개인의 꿈과 야망이 아니었다. “말씀”과 “영적 체험”의 두 레일을 따라!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열차(목회, 신앙생활, 사역)에는 반드시 “성령”이라는 강력한 동력이 있어야 한다. 동력이 없으면 그 화려한 열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그가 강조하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거울 삼아, 저자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과 신학의 길, 개척교회의 눈물, 평강교회의 44년, 성도들과의 만남, 교단을 섰던 시간, 그리고 은퇴 앞에서 마주한 안식까지 자신의 삶과 목회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빛 아래 다시 읽어낸다. 이 책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건네는 교훈서라기보다, 한 목회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증언하는 은혜의 기록이다.

저자/유선호, 이상욱
출판사/한국문서선교회

레바논의 시내

‘레바논의 시내’는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흐름이다.

높은 산에서 시작된 물이 골짜기를 지나며 숲을 적시고 꽃을 피우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인간 영혼 안으로 흘러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일으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단지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 안에서 다시 흘러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혼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것이 바로 레바논의 시내이다.

이 책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에 걸려 편만한 길이 아님을 온몸으로 통과한 한 신부의 진솔한 기록이 담겨있다. 영의 세계를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오해와 압박을 받고,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의 시간. 그러나 저자는 사람들의 소리가 멀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하게 주님을 다시 만났다고 말한다. 아무도 보



지 않는 눈물의 기도 자리, 침묵의 광야에서 들려온 신령의 음성,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아, 독자들 그 사랑의 물가로 함께 이끈다.

저자는 수십 년 사역 한복판에서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향한 목마름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한다.

저자/제시카 윤 출판사/규장

47회 전국 목회자·평신도 초청 전도동력세미나

오는 8월 10일부터 3일간 소망수양관에서 개최



지난회 개최된 46회 전도동력세미나 모습

사단법인 미래목회연구원원장 민경설 목사는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제47회 전국 목회자·평신도 초청 전도동력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34년간 한국 교회의 전도 운동을 이끌어 오면서 20여만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전도자로

세워온 전도동력세미나는 이와 같은 공로로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4 국민 미션 어워드’ 세미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했다.

이번 제47회 세미나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도 응답의 비밀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실천적 진리 등 대폭 개편

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광진교회에서 실천하여 큰 효과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세 시간 돌과 연속 기도회’도 훈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12만원(2박 3일, 침대 및 가족방 등은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개척교회(50인 이하) 주보 지참시 목회자 50%, 교인 20% 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취소시 환불은 불가하다. 신청 및 접수는 광진교회 홈페이지(www.kwangjin21.or.kr)에서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1544-0647번이다.

한편, 오는 17일 오전 11시 미래목회연구원 원장 민경설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 1-5권 완간 기념 출판기념예배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8면 광고 참조)

‘2026 G2A’ 다음세대 향한 부흥의 광장

166여 교회·단체 연합... 2만 1,000석 규모로 개최

오는 10월 9일 일산 킨텍스에서 다음세대 부흥과 민족제자화를 위한 대규모 연합집회 ‘2026 G2A in KINTEX’가 열린다. G2A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G2A 집회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G2A’는 ‘GO TO ALL’의 약자로,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담긴 지상대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 모든 영역,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 삼는다는 민족 제자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집회는 일산 킨텍스 1전시장 2·3·4홀에서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되며, 총 2만 1,000석 규모로 마련된다.

G2A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한 대형집회가 아니라 집회 이후의 ‘애프터 액션’이다. 지난해 첫 집회

이후 6개 미션필드에서 총 4,300명이 결단했으며, 전국 중고등학교 약 1,300곳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모임이 확인됐다. 또 캠퍼스 40곳에 기도모임이 생겼고, 109개 일터 소그룹 기도모임도 이어지고 있다. 복음전파와 타문화 선교에 헌신한 청년들은 훈련을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4홀에서는 기독교단체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대형 박람회도 함께 열린다. 문화부스와 토크, 푸드트럭 등도 마련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사역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다.

현재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문의는 홈페이지(www.g2a.co.kr)와 카카오톡 채널 @gotcoal에서 하면 된다.

2026 Dream Camp

하나님나라를 부탁해

Dream Camp Ministry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일들 안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여
캠프를 진행합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Dream Camp와
중·고등학생 대상의 Next Dream Camp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합니다.

보다 많은 다음 세대의 참여를 위해
참가비 없이 진행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과 세부 일정 등
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대상 초·중·고등학생 40명 (한 교회 10명 이하)
문의 전영호 목사 (010-4748-2020)

2026 Next Dream Camp

말씀으로 떠나는 믿음 여행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상 중·고등학생 20명
문의 박용국 목사 (010-7130-8525)

기간 | 2026년 8월 3일(월) ~ 5일(수)

장소 | 더인테라호텔 평택